

16/11/20(주) 주일예배 / 제목 : 무조건의 감사신앙(합3:17~19) p. 1305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함께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의 감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하는 날인데 먼저 추수 감사절의 유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한 것을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혹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람들과 성읍에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16: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고아나 과부, 객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예요. 그들과 함께 감사의 기쁨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 드린 오곡백과의 과실들을 우리의 이웃 주민들에게도 나누어주며 함께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전통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 청교도들의 감사절의 전통이 있습니다. 1620년 11월 20일에 영국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추위와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주민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배워서 처음으로 부족하지만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뒀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드린 것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링컨 대통령’ 때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11월 4째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이 공휴일입니다. 토요일과 주일이 주말이니까 4일 연휴를 미국인들은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다 모이는 것처럼 그들은 추수 감사주일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전통적인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추수 감사절의 전통을 받아 들어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 /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의 세 가지 수준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수준을 가능 짓는 여러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감사를 기준으로 그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으로 구분하면 신앙의 수준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받으려고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낮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받아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게 된 다거나,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그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신앙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자신이 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면,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억울해합니다.

둘째는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줄 아는 보통 수준의 신앙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받으려고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보다는 낮지만 높은 수준의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인생의 자세이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더욱더 갖고 있어야 할 당연한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인도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들을 당연히 여겨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상황과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최고 수준의 신앙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도 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신앙이 받은 것 때문에 그리고 잃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 때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분명 불평과 원망은 건강한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런 신앙은 수준 높은 신앙이 못됩니다. 그런데 최고 수준의 신앙이라 말씀드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무조건의 감사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의 감사신앙은 없어졌어도 감사하는 신앙이고, 망했어도 감사하는 신앙이며, 그리고 죽게 되었어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최상의 신앙적 목표로만 세워놓고 그저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많은

신앙인들이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소유했었기에 우리도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최고 수준의 신앙인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소유했던 하박국이 고백한 찬양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기원전 600년경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된 때였습니다. 인생사의 이런 저런 문제들 가운데 먹는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 먹는 문제에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던 그 때, 유다도 이 먹는 문제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즉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없었고, 땅에 심어놓았던 식물들도 바벨론 군대에 짓밟혀 아무 것도 생산해 내지 못했으며, 가축마저도 그 흔적이 사라진, 그렇게 철저하게 먹을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도 비참한 현실을 맞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비참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박국은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17~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망했는데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이런 신앙,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런 신앙이 무조건의 감사신앙입니다. 이런 무조건의 감사신앙이 분명 최고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는 감사를 기뻐하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박국이 소유했던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과 받고 난 다음에야 감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무조건의 감사를 하는 그런 최고 수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오늘의 현실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심각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원하지 않았던 가정적 아픔과, 뜻하지 않게 발생한 건강의 상실과, 복된 내일을 꿈꾸며 가졌던 계획의 어긋남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며, 마음 속에 평안과 기쁨대신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오늘의 현실이 그렇다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되며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하박국과 같이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50:23)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그 사람의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눈도 다른 사람들의 눈과 외적으로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들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한 가지를 내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 까닭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럼 암담한 현실만 보고 탄식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때 하박국을 즐겁게 하며 찬양하게 만들어 준, 하박국이 내적인 눈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보면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자신을 보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눈으로 보았던 모든 환경과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때 내적인 눈을 통해 그런 것 대신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바꿔주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하리로다”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지혜와 능력과 복이 되는 바라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그 능력과 사랑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이 능력을 베푸시면 그 능력 앞에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어떤 실패의 세력도 물러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동안 그 사람을 넘어지게 했고 아픔과 고통을 겪게 했던 마귀도 물러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상황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그 상황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리고 그 능력과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조건의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무조건의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이시니, 자신과 같은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과 저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

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분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이 우주의 그 어느 것보다도 자신의 자녀 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시간까지도 지배하시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자녀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녀 삼으신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그 사람을 살피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즉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박국이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분명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황을 뛰어넘는 무조건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조건의 감사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소유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 하박국이 보고 있던 현실의 모습은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로인해 그는 그런 기막힌 현실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중에는 조각난 믿음이 있는가하면 온전한 믿음도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온전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신앙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란 우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은 절망을 쫓아냅니다. 절망이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과 내일에 대해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 이것 역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섭리가운데 오늘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겪게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실패와 아픔을 오늘에 겪고 있다할지라도 절대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에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분명 내일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내일을 오늘보다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늘이 어떠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을 향해 무조건적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자녀에 대해 소망을 갖고 사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오늘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에 그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바꿔주실 것을 바라보며 지금 속삭이고 있는 그 자녀가 내 자녀인 것에 대해서도 그저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레의 은혜로 나의 내일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에 무조건적 감사를 해야 합니다.

분명 내일을 소망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는 무조건적 감사는 내일에 풍성한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할 확실한 능력의 씨앗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으리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위해 내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소망을 오늘 이 시간에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뛰어넘는 무조건적 감사를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조건적 감사를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여러분은 내일을 자신의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살기가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하박국은 무조건적 감사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도 지켰고, 어려움도 극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조건적 감사신앙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오늘의 상황을 멋있게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다 자신의 신앙을 무조건적 감사신앙으로 한 단계 올려보십시오. 많은 실패가 있었고 지금도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내일의 소망을 품에 안고 그저 오늘에 무조건적 감사를 하는 최고 수준의 신앙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무조건적 감사신앙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도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다 됩시다.

결론핵심 : 무조건적 감사신앙으로 추수감사절을 복되게 보냅시다.

요약정리 / 무조건적 감사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소유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